



통권 127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2. 5. 18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어느 해보다 빨리 자신의 10살되는 출범식을 '한국 대학생 5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산악대에서 열었다.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 이적규정철회한마당'과 '한국학생운동 20년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 목 • 자 •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 출소장기수박기래 선생님을 찾아서 김호 편집위원 • 6 / 정치수배자 최원석님의 어머니 방영 숙님을 찾아서 이창희 간사 • 10 / 운영위원 김호현님을 찾아서 오수강 편집위원 • 12 / 감옥에 보내는 시 유병문 편집위원 • 14 / 한총련 양심수 송영우님께서 보내온 편지 • 15 / 방북대표 김대원님께 보내는 편지 황혜로 회원 • 16 / 면회기 김소중 회원 • 17 / 산행기 이일규 회원 • 18 / 회원교육강좌 보고 김재환 회원 • 19 / 특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총회보고 • 20 / 나의 삶 나의 일터 노혁 회원 • 24 / 광고 • 25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승: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승: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o.or.kr

노동자 명절에도 감옥에 있어야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 -신자유주의 · 구조조정 반대, 노동권 · 생존권 보장,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한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5월 1일은 온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의도 시민공원과 종로공원에서 따로 '세계노동절 112주년 기념과 노동자대회'와 '노동자 기념대회'를 열었다. 노동자 명절에 있었던 노동자 대회였지만 축전 분위기는 아니었다. 다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고용안정 · 단결권 보장,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했다. 세계노동자들의 명절인 메이데이(May Day)는 처음부터 명절만으로 있어 온 것은 아니었다. 8시간 노동제를 이루어 낸 성취감은 있었지만, 그것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메이데이'를 통해서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를 통해서, 생산의 주체자이고 가치창조의 주인공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것, 사회구조변혁과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각성과 단결과 권력쟁취를 추구해 오기도 했었다.

다시 세계노동절 112돌을 맞는 오늘 '메이데이' 의미의 현재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38일동안 파업투쟁을 해 오면서 주장한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와 이를 관철시키려 했던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이 불발되면서 공기업 · 기간산업의 민영화(해외매각등) 저지 전선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와 정리해고노동자(모든 산업예비군, 도시빈민 포함)등의 노동권 · 생존권과 노동계급 사이의 차별화가 심각해진 오늘의 민주노조운동의 지향점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노조운동의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정의 차원에서,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 전략아래 온 세계의 노동계급의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오늘 더욱

장기전략과 함께 심각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조합주의적 고용안정과 임금투쟁을 넘어 노동계급(산업예비군포함) 전체를 억압 · 착취하는 초국적 자본과 이에 종속된 요소와 맞서 싸워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바로 무한경쟁이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필연적으로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발전노조의 38일 파업투쟁에서 주장되었던 발전회사를 비롯한 공기업(기간산업등)의 사유화(민영화)하거나 해외매각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해야 할 이유는 간단했다. 특히 기업이윤을 많이 올리던 공기업의 이윤을 개인 또는 소수자가 차지하게 되거나 해외로 빠지게 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리해고되어 일터를 잃게 되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 예로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호주 '맥쿼리' 은행의 '니컬러스 · 무어' 대표이사는 말하고 있다. '연내에 이루어질 발전산업 민영화에 주목한다 - 앞으로 철도사업이 민영화된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 맥쿼리는 2년전 신한은행과 합작으로 세운 신한맥쿼리 금융자문사를 통해서 부산 수정산터널, 대전 강변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서울-춘천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에 민자참여에 대한 자문과 투자를 중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초과이윤을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투자대상이다.' 장사되는 금융기업, 기간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초국적 자본은 탐욕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초과이윤은 바로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의 낮은 임금과 긴 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 등을 통해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구조는 정치로

이어지고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분까지 예측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들이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구조조정을 내세운다. 세계화시대, 자유경쟁시대 경쟁에서 이겨야함을 내세우며 노동비용을 줄이려 한다. 정리해고로 쫓겨난 산업예비군이 있는 동안 저임금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 세계철강회사 1,2위를 다투고 기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우량회사 포항제철이 민영화되었지만 외국인 주식이 65%를 넘어섰는가 하면, 대우자동차가 넘어갔고 하이닉스가 넘겨질 것이라 한다. 정부에서는 상반기안에 발전소 1개사 매각계획을 발표했었고 지난 국회 회기때 상임위에 철도민영화 법안제출 등 올해안에 한국통신과 전력·가스·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등 공기업과 파워 콤·한전기공등 한전 4개 자회사를 민영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당연히 대규모 인원감축 바로 공공부분에서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은 바로 이 땅의 노동자들을 2등 하청노동자로 전락시키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위한 굴종을 강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전체 근로자(노동능력과 의지가 있는 실업자, 반실업자, 도시빈민들 포함)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같은 노동의 같은 임금 원칙」을 실현해 내는 임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해 임금·근로시간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시직(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90만 1천원은 상용직(정규직) 1백 59만 9천원의 56% 수준이었고 일용직 임금은 71만 6천원으로 상용직의 45%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관리직은 2백 43만 1천원인 반면에 단순노무직은 74만 1천원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기술직(1백 52만 3천원), 사무직(1백 35만 9천원)에 비해 농·어업직(92만 2천원), 시장판매직(77만 5천원)의 차이, 대졸이상(1백 60만 5천원),

고졸(1백 14만 8천원), 중졸이하(83만 5천원)와의 큰 차이도 보여주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같은 시간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이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불안요소이면서 비정규직을 방패삼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확보라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 시간 우리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500여일 농성투쟁과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조투쟁을 떠올리게 된다. 취업노동자의 52.8%(민주노총조사) 점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가. 최근 한겨레21에 실린 취재기사를 중심으로 잘 나간다는 현대자동차노조를 통해 어렵해보자.

비정규직 당신은 ‘서글픈 식민지’. 기자는 이렇게 글 제목을 달고 있으면서 ‘제3의 계급, 2등노동자’라 했다. 현대자동차 제2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작업복 차림에서부터 표식이 다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지난해 말 단협때 전 조합원에게 해마다 900여명씩 1주일동안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했지만 하청노동자(비정규직)에게는 해외연수는커녕 ‘노동조합’도 넓직한 노조사무실도 그림의 떡이라 했다. 휴일특근제도 정규직·비정규직 밤새워 함께 일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1시급제만 적용 평상시의 1.5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규직은 2시급제를 적용받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곱절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노조가 회사로부터 받아낸 성과금(1조원에 달하는 순이익) 노·사배분에서 노조는 1인당 600~1천만원까지 성과금을 챙겼지만 하청노동자(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에 다시 회사와 협의, 겨우 1차 하청노동자에게만 60~120만원씩 얻어냈을 뿐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한 톨도 만져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가 받은 성과금은 하청노동자들의 저

임금,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나온 것'이라 했다.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면 정규직대신 목이 잘려 질 만큼의 충분한 하청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서'가 있다. 바로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책'이고 비정규직에게는 '정리 해고 통보서' 격이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동지'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노동자'일 뿐이다. 이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벽과 차별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자들을 분할통제하려는 사용자측이 전략적으로 갈라놓은 결과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희생과 차별이 가져다주는 기득권을 언젠가부터 정규직 노동자는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 하청노조를 결성하자 정규직이 구사대로 등장 하청노동자를 탄압한 '광주 캐리어 사태'도 있었다.

이 글을 교정보고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또 다른 서글픈 소식이 들어왔다.

517일 장기파업을 하던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희망자에게 올 상반기 중 도급업체 취업알선', '위로금 지급' 등 조건으로 회사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국통신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정한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회사는 70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 그 뒤 해고예고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투쟁은 이어졌었다. 한강대교위 농성,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비바람속 8m높이 광케이블위 고공농성, 국회의원회관 옥상농성, 국회본회의장 진입시위, 세종문화회관 옥상시위 등 목숨을 건 방법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오랜

파업투쟁에서 얻은 것 없이 조합원 총회에서는 회사가 파업초부터 말해 온 것에 동의하고 말았다. 장기파업동안 이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었다. 노숙농성을 하면서 한승훈 조합원이 장파열로 세상을 떠났고 이동규 조합원은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되었으며 198명이 구속되었고 벌금과 손해배상액만 3억 2천만원이다. 위에서 예를 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도 받지 못하는 급료에 대한 소송에서 그리고 2년이상 근무했으니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소송도 모두 패소했다. 함께 일하는 같은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서도 보호장치가 없었다. 자본에 의한 저임금정책의 전형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생존권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수없이 패배를 되풀이해왔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단결만이 해낼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대전환적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동일직종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원칙, 조합이 기주의가 아닌 모든 노동자의 단결, 산별노조결성,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노동자 계급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문제, 장애인노동자문제도 같은 원칙에서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또 다른 주요 임무로서 자주·민주·통일사업이 있다.

이제까지 노동진영 안에서는 민족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본임무는 인간에 필요한 가치를 창조해 내는 노동권과 그 노동의 재생산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 쟁취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 이전에 인간이었듯이 노동계급 이전에 민족 구성원임도 사실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변혁적 민주노조운동의 당위성만큼 민족의 존엄과 생존 이익 등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데 노동자들이 외면해선 안된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계급·계층 모두가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일제 강점기에 경험했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은 노동계급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쳐지고 있을 때도 (노동계급 사이의 전쟁이 있어선 안되지만) 소련에서는 “슬라브 민족을 위하여” 나치에 대항했고 중국에서는 일제에 맞서 국·공합작을 했었다. 외세와 분단시대의 민족모순은 계급모순과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불필요한 가정일 수 있지만 만약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투쟁대상을 국적을 초월한 ‘자본일반’으로만 본다면 공기업·기간산업의 민영화(해외매각등) 따위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발전노조 파업투쟁과 이를 받침하여 계획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이 공기업의 민영화(해외매각)를 반대하는데 있었던 것은 닥쳐올 구조조정·정리해고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소박한 민족기업을 살리자는 뜻만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그들의 초과이윤을 위한)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와야 할 이익을 소수 민간인과 해외자본에게 빼앗기고 있음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 지배전략은 이 땅의 노동자뿐 아니라 기층 민중 모두에게 상대적 빈곤을 강요하게 될 터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란 역사적 시기에 남북사이에 화해와 협력, 자주와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조국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책동을 하며 대량살상 무기강매하는 자가 미국이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정리해고,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수입 개방강요 등으로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있는 자도 또한 미국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민족 모두에 적대행위로 대하는 어떠한 외세와도 노동자로서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참 뜻은 사회정의에 있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의 정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며 어떠한 외세의 전쟁책동에 맞서싸워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6.15남북공동선언시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세계화·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바로 미국의 패권주의 경제침략정책에 이 땅의 노동자들은 당당히 앞장서 싸워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50시간 [1999년], 미국-41.7, 일본-37.4, 독일-37.5, 프랑스-38.5, 홍콩-44[1998년], 멕시코-45.4, 호주-38.9, 핀란드-38.1, 노르웨이-36.6시간)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 땅의 노동자들은 IMF체제이후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맞서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싸워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당국은 공안대상으로 하여 현 정권 출범 뒤 2002년 5.8일 현재 738명을 잡아 가두었다. 파업투쟁등 노동쟁의 결과는 고소·고발에서 구속·수배조치까지 정리해고와 재산상 가압류까지 당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현재 구속되어 있는 41명 노동자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발전노조 등 파업과 관련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가해지고 있는 고발·수배조치, 해고조치를 취소하라.

비정규직 차별화를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며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공무원·교수노조 등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구조조정·정리해고와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같은 조직은 빨리 없어져야 해!”

김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5월 13일 월요일 조금 일찍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사당역에서 후원회 수습간사를 만나 안산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몇 차례 소식지에 원고를 실어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존재이고 스승이신 장기수



스승의 날 행사장에서

선생님을 뵈고 살아오신 얘기, 그 지난한 역사를 간접체험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고 조금은 긴장이 되었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없음과 가슴떨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초행길의 안산이었지만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는 길이 공단지역이라서 그런지 아시아계 외국인이 자주 눈에 띄었다. 안산역에서 내려 선생님이 일러주신 101번 버스를 타고 40여분 가까이 걸려서야 선생님 댁 근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나 마지막 정리를 하며 기다리는데 5분도 채 못되어 사각 검정빨테에 편안한 차림을 하신 선생님께서 우리 일행에게 다가오셨다. 폭 고개 숙여 커다랗게 인사하는 우리를 선생님께선 편안하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선생님 댁으로 향하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산이 있다며 보여주고 싶다 하셨다. 선생님 댁의 뒷쪽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선생님께서 이를 묘향산이라 부르신다 한다. 일전에 묘향산 관광을 가셨었는데 묘향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산과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다 한다. 그래서 작은 묘향산이라는 뜻의 묘향산이라 하셨다는데 천하제일이라는 묘

향산이 이 정도라면...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사모님께서 미리 정성껏 준비해놓으신 갖가지 맛있는 반찬들로 가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선생님을 모시고 나가 맛있는 진지를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극구 사양하시며 야채밖에 없지만 당신 댁에 왔으니 여기선 이렇게 먹고 나중에서 울에선 젊은 후배들의 청대로 하겠다 하신다. 푸짐한 저녁식사와 매실주를 반주삼아 긴장을 풀며 선생님의 이야기속으로 빠져들었다.

선생님과의 세월의 격차는 무려 50년에 가까운 세월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쳐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의 시절을 거쳐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통치 그리고 이에 맞섰던 해방 이후 가장 큰 조직사건이었다는 통혁당 사건까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필자가 산소(O₂)세대

는 아니더라도 서태지 세대이지는 않딘가? 세월의 격차를 뛰어 넘어 어렵사리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딴진 첫 한마디!

“선생님 언제 출소 하셨나요?”

“91년 5월 22일이야! 요즘은 건망증이 심해졌어.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죽기 전에 젊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잖아! 첩보는 커녕 개정조차 못 하고 있어.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야!”

답답했다.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20여년 이상 옥죄었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선생님을 옥죄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지 벌써 십 년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변절의 시대를 살았던 친일파와 그 앞잡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배를 불리며 살아갈 때 그 법으로 피갈던 혁명동지들을 형장의 이슬로, 총살로 명을 달리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체온으로 느껴야 했던 그 시절의 고통을 여전히 짊어진 채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들까지 어린 후배들에게 전해주고자 마음을 다잡으신 선생님께선 옛 기억을 더듬어내자니 무수한 상념이 스쳐지나가고 적잖이 마음이 괴로우셨던지 한 모금, 두 모금 술을 삼키시곤 하셨다.

선생님은 호적상 음력으로 27년 2월 10일생(금년 77세)이시다. 7남매의 막내, 농사꾼의 아들로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셨는데 이후 줄곧 전주에서 성장하셨다고 한다. 그때 대개의 소작농 아들이 그렇듯이 선생님 또한 어려운 학업생활을 하셨는데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 나가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으셨던 선생님은 상처받은 어린 마음을 안고 아버지가 쟁기 가는 밭에 나가서 투정을 부리기도 하셨다고 한다. 그러곤 아버지의 밭일을 도와드리고 50전을 얻으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면서 학업생활을 했으니 상급학교를 진학할 생각은 엄두에도 못 내셨다 한다. 14살에 초등학

교를 졸업하고 당신보다 공부를 못 한 지주·공직자 아들은 모두 상급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에게 지게와 망태를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 하셨다 한다. 자신보다 실력이 못한 지주·공직자 아들이 상급학교 교복을 입고 으스스대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생님께선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른 채 1년 동안 노동을 하셨다 한다.

당시 일본에는 큰누님과 매형이 계셨는데 배움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 못 하셨던 선생님께선 누님에게 제발 당신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여 결국 누님이 계시는 일본으로 밀항을 하셨다. 행선지는 누님이 살고계신 오사카였는데 도중에 배에 문제가 생겨 목적지가 아닌 시모노세키에 배가 입항을 하고 결국 선생님께선 누님과 매형이 데리러 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다. 다행히 그곳에서 선장이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부두 노동자들 대부분이 하역노동에 종사하는 조선인이었다 한다. 음식은 주로 내장탕(오스모쵸)을 사드셨는데 일본인들은 당시 소의 내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소내장을 조선인들이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던 것이다. 시모노세키에서 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이 선생님을 오사카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다.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오셨던 선생님이신지라 노동자셨던 매형의 조언대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기로 하셨다 한다. 그래서 오사카 후지모토 프레스리는 회사에 견습공으로 취직을 하셨다.

선생님은 같은 방을 쓰는 일본인이 작업 시작시간인 8시까지 잠을 자도 조선인으로서의 차별을 극복하고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닦았다 한다. 이러한 선생님의 성실함이 소문이 퍼져 당시 웬만한 기술자들도 사장면회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사장으로부터 호출이 와 직접 면담을 하게 되었다 하신다. 사장이 면담을 하면서 소원이 뭐냐고 묻기에 선생님은 주저 없이 공

부라 하셨다 한다. 그런 선생님의 어렸지만 당차고 똑똑함에 사장이 감명을 받았던지 이를 계기로 부속학교 야간 입학 허가를 받아 주경야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일본에서 풀어가던 중 1945년 20살의 나이로 해방을 맞이하셨다. 당시 선생님은 철저한 일본교육(내선일체, 국체명징, 인고단련)을 받았다 한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해방직후 10명 중 7명은 일본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신다. 하긴 해방이 됐다고 만세소리를 몰라 ‘반자이’ ‘반자이’ 하며 그 기쁨을 일본군가로 부르던 시절이었다니 말이다.

20살에 귀국을 하여 고향인 전주로 가셨다. 광한루에서 일제에 의해 투옥되었던 독립투사가 석방 연설하는 것을 지켜보셨는데 ‘몇 년, 몇 십 년 그 긴 시간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연설하는 독립투사가 마치 신처럼 보이셨다 한다. 이러한 충격은 해방이후 뜨거운 청춘의 피를 충동질하여 서울로 상경한 뒤 일본인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청년회를 조직하여 구례역 등에서 치안대의 협조 아래 일본인의 무장해제를 단행하기도 하셨다 한다.

이후 노동생활을 하시면서 47년 고대에 입학을 하셨는데 미군정청과 이승만의 지원을 얻은 서북청년단의 횡포로 학교를 옮겨 흑석동 중앙대에서 재학 중이던 1950년 3학년 때 전쟁을 맞이하셨다. 전쟁이 발발하자 각 대학에서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앞다투어 지원을 했는데 중앙대에서만 3개중대가 지원을 했다 한다. 배제중학교에 결집해서 포천산 밑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남진해서 전라도 고흥 앞 섬까지 진격 상륙작전을 벌려 해방을 시켰는데 곧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다 한다. 이후 철원으로 후퇴 명령이 떨어져 후퇴하던 중 담양 순천에서 미군에게 포위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나머지는 지리산으로 입산하였다 한다. 잠시 몸을 피신하셨던 선생님은 이후 체포되어 3년의 옥고를 치루고 53년 석방된 후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 장가를 드셨다.

이후 60년 전주에서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 중 4.19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4.19의 주요 이슈는 민주화였는데 이의 한계를 절감한 선생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혁신청년동지회를 조직하셨다. 회장으로는 친구였던 박상순을 내세우셨는데 박정희의 쿠데타 때 박상순은 구속이 되어 3년의 옥고를 치뤄야 했고 당시 조직부장이었던 선생님은 3년의 수배생활을 하다 64년 동경올림픽이 진행 중이던 일본으로 밀항을 하여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하셨다.

68년도 1차 통혁당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의 조직은 점조직이라서 선생님이 속한 조직은 다행히 발각이 안된 채 계속해서 활동을 하며 재건당을 추진하던 중 74년에 발각이 되어 12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후 재판을 받는데 당시 재판은 검사의 독무대였다고 한다. 얼마전 다녀오신 강정구 교수님의 재판에서 본, 검사가 변호인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자 판사가 나중에 발언 기회를 줄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던 일이나 강정구 교수님께서 너무도 조리있게 자신의 당당함을 피력하던 모습을 이야기하시며 당시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하셨다. 74년 그때는 피고인에게 공소장도 보여주지 않을 뿐더러 변호사에게까지 공소장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다. 어떤 땐 오죽하면 포승줄에 뽕뽕 묶여 재판장으로 향하는 선생님의 품에 찢러넣어준 공소장을 변호인이 잠시 빌려가 읽고 재판에 임했다고 하니 그 재판의 야만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결과 선생님을 포함한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그 중 2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함께 체포된 강을성은 국방부 문관으로 재직중이었기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바로 총살집행이 되었다. 선생님은 이후 9년 동안 수정을 찬 상태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국제 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지정을 하고 국내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등 중

교인의 결정적인 역할로 83년에 무기로 감형됐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종교인 외에는 입도 뺄 수 없는 시절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함께 사형집행이 미뤄지고 있던 김태열은 친동생이 복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를 회상하던 선생님은 가슴이 메어지는 듯 눈시울을 붉히신다. 이후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어 생활을 하셨는데 모든 장기수들이 대전으로 집결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소측에 의해서 분산 수형이 진행되었고 선생님은 전주로 이감을 가시게 되었다. 당시 전주교도소는 서예반으로 유명했는데 1차 통혁당 사건으로 먼저 들어오신 신영복선생 등과 함께 생활을 하셨다 한다. 선생님께선 방안에 걸려있는, 당신이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91년 5월 22일 출소한 선생님은 따님을 따라 안산에 거거하시게 되었는데 그뒤 딸이 캐나다로 간 뒤로는 홀로 ‘안산재활노인복지회’를 조직하시어 젊은 시절 익힌 노동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놀이 마차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을 후원해 오셨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힘에 부치는 일이라 그만두셨단다.

안산지역과 관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70, 80년대 학번들이 이 지역 노동현장에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민노총 간부가 되었다 한다. 그 후배들이 산본노동자회의도 만들고 노동자전국회의라는 단체도 일구었는데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 실천하는 노동자가 되자하여 민노총 하에 있으면서도 독립된 채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지역의 청년후배들과 노동자들이 안산통일학교를 2000년에 창립하여 선생님에게 교장을 맡기신 이후 지금까지 안산통일학교 교장으로서 여전히 식지 않은 통일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셨다. 선생님은 지금도 당신을 후배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노동자라고 하신다 한다. 기력이 예전같지 않지만 노동기술은 여전하시다면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같은 조직은 빨리 없어져야 해!” 라고 하시는 선생님을 뒤로하고 서울로 늦은 발걸음을 옮겼다. 나오는 길에 묘향소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필자는 아무리 보아도 천하명산 묘향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선생님이 묘향소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곳에서 젊고 열정적인 통일 일꾼들을 만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자유롭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다음에 언젠가 무더운 여름밤 선생님과 함께 차가운 맥주로 그 무더위를 날려버리며 선생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더 들을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희망해본다. 그때엔 이 필자도 묘향소산에서 아름다운 묘향산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골다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많이 불편하시고 다리가 아프시다는 선생님께선 어린 후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운을 해주셨다. 그리고 어느 역에서 내려 어떻게 가면 된다고 자세히 일러주시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음을 많이 미안해 하셨다.

“...우리 안산통일학교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를 실현 관철하기 위한 길에 주춧돌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일꾼을 보다 많이 육성하여 자주적인 민족통일에 관한 이론무장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각자 속한 일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구 반통일 세력을 고립 압박하여 마침내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2002 통일학교선생님 인사말 중

선생님, 머지 않은 통일의 그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 막내 풀렸어요’

이창희 양심수후원회 간사

당신이 낳은 자식을 보지 못하는 괴로움은 특별히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일 것이다. 어느 민가협 어머니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양심수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는 그래도 한 번 면회를 통해 자식의 안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이지만, 정치수배자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는 자식 안녕 여부에 항상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수배자를 잡으려는 공간기관의 감시 눈초리로 인해 보고 싶어도 전혀 볼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다. 그러한 고통을 6년째 지니고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 1997년 5기 한총련출범식사건으로 수배중인 건국대생 최원석군의 어머니 방영숙님이다.

어머니와의 인터뷰는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민가협 장터’ 첫날에 진행했다. 항상 수고하시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분주한 음식장만을 바라보며 잠시 한가한 틈을 타서 장터 한 구석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원석이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각별하다. 그 이유는 원석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믿음직한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고통은 더욱 큰 듯하다.

대다수 양심수들이 그러하듯이 원석이도 부모님에게



민가협 장터에서

효도하는 자식이었다. 어머니는 원석이를 낳을 때 “수도꼭지를 트니 물이 팔팔 잘 나왔어”라며 태몽을 이야기하셨다. 태몽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좋은 꿈이라며 자식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왕십리근처 사근동에서 원석이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아이였다. 한 번 가르쳐주면 척척 기억하는 그런 아이였다. 아버님이 저녁에 알파벳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주무셨는데, 다음 날 원석이가 그 노래를 그대로 불렀다고 한다.

이 영리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반장이 되었다. 개구쟁이지만 잘 생기고 귀엽고 영리하니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에 반장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음부터 “반장하지 마라”고 했다. 그 후 중학교 때 학급친구들이 원석이에 게 반장을 하라고 했다. 친구들의 권유에도 원석이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할 수 없다고 했고, 친구들은 그래도 뽑는다라고 하자, “그럼, 나는 다음날로 학교를 그만 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똑똑하다고 칭찬했던 원석이는 대원외고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그냥 대원고를 다녔다. 주로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대원외고에서 학교생활하기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답답해서인지 원석이는 고등학교 당시에는 공부에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건국대 축산학과에 간신히 입학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냥 속상해서 우니

까 “내가 공부 안해서 그런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한다.

가정에 원석이는 대단한 효자였다. 아버님께서 몸이 편치 않아 몇 번씩 사경을 헤매셨다고 한다. 원석이는 고등학교시절 밤 10시에 끝나는 보충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위아래 층이 시끄러울 정도로 아버님께 안마를 해드렸다고 한다.

자신의 진로도 항상 어머니와 상의했다고 한다. 대학 입학 후 어머니께 동아리 가입여부를 물었다. 어머니는 학생운동을 할 까하는 걱정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큰일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민속패 동아리에 들어갔으면 하고 물어와 어머니는 민속적인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동의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지금 “그게 실수였다고 한다” 하신다.

원석이는 축산대에서 동아리활동 등 대학생활동도 활발히 잘하고, 군대생활도 잘 했다.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 마련에 보태고, 장학금도 타오는, 소중한 자식이었다.

그런 까닭에 원석이의 수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뉴스에 나오고, 형사들이 들이닥치고, 누나들의 집까지 찾아가고 난리였다.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 등 가족들에게 닥쳐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아가 가족들에게 하나의 희망이었던 원석이의 수배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사라지게 하였다. 그래서, 어려울 때 아끼며 쓰지 않고 모았던 재산도 “돈 벌어서 뭐하냐”며 물쓰듯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러한 고통에 ‘차라리 자식이 죽고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원석이가 엄청 보고 싶었다”라며 새벽에 평평 우셨다고 한다. 그 이후 당시 사셨던 중국동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하루하루 그냥 돌아다니셨다. “동쪽을 거닐면서 원석이가 붙잡히지 않도록 동쪽에서 막아주고, 서쪽을 거닐면서 서쪽에서 막아주고, 남쪽을 거닐면서 남쪽에서 막아주고, 북쪽을 거닐면서 북쪽에서 막아달라고 했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꿈을 꾸셨다. “고목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잎이 없고, 하나는 잎이 많았어”라며 곧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다. 한 번은 기도를 하실 때 원석이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히 보았는데 왼쪽에 원석이는 죽쇄를 차고 있고, 오른쪽의 원석이는 정장차림이었다고 했다. 이도 곧 좋아질 의미라고 하신다. 원석이에 대한 어머니의 바람이 이러한 데 하늘도 이를 알아줄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는 민가협 사무실을 찾으셨다. 그리고, 1998년 8월부터 진행된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도 찾아가셨다. 자식 문제로 찾아갔지만, 처음에는 그들의 활동이 모두 이해되지는 않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민가협 활동을 직접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한다. 함부로 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붙잡힌 학생들을 풀어낼 때 가장 기쁘다고 하신다. 그리고, 동질의 처지에 있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들을 나누면서 가슴이 후련해지고 가깝게 느껴지신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민가협 어머니들과 힘을 뭉쳐서 반드시 자식의 정치수배를 풀겠다고 다짐을 밝히신다.

자식의 수배가 풀리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지냐는 질문에 “‘우리 막내 풀렸어요’, ‘우리 막내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치며 통곡하고 싶어, 그리고 못했던 이야기를 실컷 나누고 싶어”라고 소박하게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인터뷰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가장 속상한 것은 어릴 적부터 착하디 착한 자식이 정치수배자가 되어 공안당국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신다. 자식이 결코 나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당신이 자식을 키우면서 본 모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취재를 마치고 다시 바쁘게 장터 일을 도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한 때 정치수배자였던 필자는 어머니들의 대한 감회가 새로웠다. 자식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늘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느낀 자리였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어떤 아저씨 이야기

오수강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후원회 소식지에 호현 아저씨 이야기를 써보라는 지령(?)을 받고 정말 간단에 아저씨랑 오붓하게 도란거리게 됐구나 싶어 내심 기뻐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모임을 통한 만남은 대체로 여럿이 만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흥겹고 든든한 반면, 자칫 섬세하게

그 사람 속내를 따라가 보는 여유를 놓친 채 전체적인 굵직한 흐름에 묻혀 흘러가 버려 서로를 잘 읽어내지 못하면서 다 읽고 있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여, 이 기회가 나의 오랜 친구 호현 아저씨를 좀더 제대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하는 욕심도 덩달아 났다.

저녁 식사를 해야지...?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 할 식당을 찾아다니다가 의기투합하여 어느 자그마한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이미 잘 알고들 계신 것처럼 나는 안주발, 아저씨는 술발에 일가견이 있기에 별 다툼없이 자기 분야 잘 처리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갔다.

아저씨는 아버님 김재남 님과 어머니 김계희 님의 4남 3녀 중 막내로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지리적 감을 잘 못잡는 내게 전봉준 장군 생가에서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라는 말씀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여 주셨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부농 집안이었지만 아버님이 아저씨 중1때 돌아가실 때쯤엔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단다. 하지만 어머니의 특유의 막내에 대한 기대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아저씨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업을 계속하실 수 있었다.



오시롱감시롱 회원기행에서의 기념사진. 손 흔들고 있는 김호현님(가운데)

아저씨는 아저씨가 다니신 양정 고등학교에 대해 민족의식이 강한 이 학교의 분위기가 아저씨가 세상을 고민하고 올곧게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를 배우는 첫 터전이 되었다고 회상하시며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셨다. 그 이후 고려대학교 경

제학과에 진학을 하셨고 이 시기부터 돌아가는 시대상황을 좀더 끌어당겨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운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대답해 주셨다.

“내가 꼭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상황이 그 길로 밀어낸 거지. 그 당시엔 학생들 80퍼센트 이상이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거든. 79학번에서 83학번까지가 정말 힘들게 싸웠던 학번들이지. 한 10퍼센트 정도나 정상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옆에 멀쩡이 몰라나 앉아 남들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앞길만 챙기는 놈들도 더러더러 있었지만.”

아저씨는 80년 5월 광주 현창에도 있었다. 당시 광주 집에 내려가 있는데 일이 터진 것이다. 얼마간은 고등학교 다니던 조카와 함께 숨어 지내시며 상황을 지켜보시다 가 나와서 시민군에 참여 하셨다고 한다. 이때 오치 화정동 라인에 가담을 하셨는데 소방 고가사다리 차를 사람들과 몰고 가다가 차가 용봉천에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잡혀서 구속 되셨고 덕분에 여즉 부끄러운 산 자로 남았다고 하셨다. 이때 신문에 난 기사 얘기를 해주셔서 배꼽 잡고 웃었다. <광주

시내에서 유일한 고가 사다리차를 폭도들이 탈취, 전복시키다!>

그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늦깎이 졸업을 하신 후, 고등학교 때부터 되고 싶었던 기자라는 길이 시위전력과 나이 제한에 걸려 어려워진 가운데, 통신일간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전기통신일보'에 입사하셨다. 하지만 사장이 6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했고, 주동자 15명 해고, 제작 전면 거부 투쟁, 문화공보부 항의 방문, 근로감독관에게 서면 탄원서 제출, 그 사이 다 팔아먹고 부도난 후 사장 도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이리저리 지친 심신을 달래려 찾으려 나섰던 길이 지리산에서의 태백산맥제였다. 아저씨의 오리지널 표현을 빌리자면 '분명 전생에서의 엄청난 악연을 풀기 위해 현세에 어쩔수 없이 만날 수 밖에 없었던' 옴시롱감시롱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옴시롱감시롱의 주춧돌 권오현 선생님의 이끄심으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일에 참여하게 되고, 동시에 아저씨의 꿈에 그리던 여인' 미라 언니와의 만남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였으니 정말 살면서 운명의 자리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인진.

“내가 보기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가 다른 운동 단체에서 자칫 결여되어지곤 하는 철저함과 순수함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소중하지. 요즘은 90년 중반 이후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현장에서 뛰던 회원들에 비해 좀 형식적이 된 것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 어떤 단체는 발로 뛰는 사람들 중심으로 대내외적 의사결정이 될 때 더 제대로 되어 굴러가는 것 아닐까 싶는데 말야. 어쨌든 늘 나를 남아있게 하고 진진하게 하는 것은 권오현 선생님 같은 역사에 헌신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장기수 선생님을 지켜보면 볼수록 너무 존경스럽고 고맙고 또 그분들의 인간적인 갈등을 보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어쨌든 그 분들이 있기에 중간에 접지 않고 나가게 되고 꾸준히 가다듬으려 하고 그러는 거 같아.”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아저씨는 아저씨가 군데군데 기여해 왔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면 참 쑥스러

워 하신다. “사실 지금은 어정쩡하게 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 정말 진짜 알짜배기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죄다 죽었구. 그나마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 그런데 내가 난 이런 거 하고 살았어... 하면서 주절거린다는게 얼마나 죄스러운건데. 그래서 난 이거 정말루 안하구 싶어.” 그러구 웃으신다. “취조 언제 다 끝나냐?”

걸어나오는 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시는 아저씨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며 앞으로의 꿈에 대해詰問 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 다시 떠올랐다. “우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이 많이 들어 나를 돌아보았을 때 과오없이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반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현이랑 건우가 얼마나 아빠보다 더 철저하고 아름답게 당당한 역군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언니 고향 구례 섬진강변에서 그림처럼 시처럼 꽃처럼 닭이나 토끼 키우며 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땐 지역사회 운동에도 좀 참여를 좀 해볼까도 싶고..., 어릴 적 쓰고 싶던 시도 좀 끄적거리며 그동안의 삶도 좀 정리해 볼까도 싶고...”

난 사실 이 글이 참 어려웠다. 왜냐하면 아저씨의 ‘이름표’가 아무리 해도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분명하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저씨를 만나고 와서 이 글을 쓰면서 뭔가 잡히는 것이 있었다. 그건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규정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자세와 열정을 읽어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하는 깨달음 하나.

6월쯤 풀려나셨는데 이미 학교는 제적을 당하신 뒤라 한 2년간 형이 하는 장사를 돕게 되었다고. 그때 배운 노하우로 웬만한 술, 닭, 족발에 대하여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문가가 되었노라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다. 하긴 그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지.

그래 그런거 같다. 꼭 꽃이 아니어도 좋다. 그렇다고 꼭 뿌리가 아니어도 좋다.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어쨌든 어딘가 하나 자리잡고 앉아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남아 고민하고 모색하며 삶을, 사람을,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여전히 살맛나게 하는게 아닐까.

하여 힘이 나는 하루였다. ✎

누가 그의 고통에 귀를 막고 눈을 감는가

- 전주옥에서 분단의 아픔을 앓고 있는 김대원을 위해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6·15를 통일햇살이라 부르자
분단의 빙벽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
우리 모두 그 햇살이
50년의 언 땅에 새살 같은 봄꽃이 피우게 할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햇살 아직도 고루고루 퍼지지 못해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서른 두 살의 청년, 김대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스스로 발을 벗고 분단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그
그는 지금
분단의 짜늘한 빙벽 안에 갇혀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날카로운 독가시에 찔려 신음하고 있다

반백 년 분단
신열 떨어뜨 앓고 있는 조국의 현실도 눈물인데
감옥이라니
감옥 속에 갇혀 분단의 아픔을 앓고 있더니

우리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기 위해
쇠망치가 되어 분단의 빙벽을 두드리자
산산이 깨버리자

금단의 땅 북녘으로 분단선을 훌쩍 넘어간
문익환, 임수경 그들이 통일의 꽃이었다면
김대원 그 또한 한 그루 통일의 묘목 아니겠는가

누가 그를 가두고
누가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가
또 누가 그의 고통에 귀를 막고 눈을 감는가
이 머저리 같은 분단 세상이



21세기의 백주대낮에 자행 되는 야만

광희님께

진작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오늘에야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야할지 약간 망설이다가 그래도 구체적인 사람이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지난 겨울에 받은 엽서를 떠올려 광희님 앞으로 띄웁니다.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후원금, 귀중하게 잘 받아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인사 몇 마디 해버리고 뱃을 수는 없겠다 싶어 광희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 곳 대구구치소를 둘러싼 풍경에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국립호텔'이란 말을 알든 떠올릴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전체 10층으로 말끔히 지은 건물을 밖에서 올려다보면 감히 감옥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겨울에 면회 온 한 후배 녀석이 대뜸 한다는 말이 국립호텔에서 지내는 기분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처럼 갇혀있는 꼴이야 매 한가지지만 지난 98년에 경험한 감옥(화원 대구교도소)에 비해서 시설이 깨끗한 것은 분명했지요. 겨울철 쉽게 걸린다는 동상은 커녕 온기마저 느껴지는 독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으니 어리둥절해 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엄살도 떨어가며 얻을 수 있는 재미고 사라지게 되니 더 심심해졌습니다, 허허.

그러나 제 아무리 용모가 변했더라도 감옥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며, 짐승처럼 갇혀 사회적 관계를 차단 당한 채 야만을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수구권력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야

만으로 규정하지 못한 채, 싸우는 자라면 의례히 거쳐야 할 통과과정 짚으로 치부해버리는, 학생운동 내부의 관성도 지적되어야 할 듯하네요. 최근 몇 년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해 1,000명 이상이나 되는 학생양심수들이 양산되면서, 이제는 누군가가 난데없이 잡혀가서 구속당하는 일이 무덤덤한 일상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이것이 21세기의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야만이란 것을 줄기차게 폭로하며 감옥 안팎의 끈끈하고 다정한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 제 생활에 대해서 몇 마디 하려고 말해 놓고선 엉뚱한 결론을 맺고 마네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싸우시고 땀 흘리며 건설하시는 모습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일이 제 일상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도 시간은 흘러주어 저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누릴 기회가 곧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모진 야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로부터 2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된 돈이었다기보단 따뜻한 정성과 애정으로 느껴만 지더군요. 건강하게 잘 생활하겠습니다.

역시 광희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02. 4. 17

송영우 드림

(아, 그리고 이 편지를 광희님이 받으실 때쯤에는 이곳을 떠나 화원 대구교도소로 이송될 것 같습니다)

-
- 송영우는 1999년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한총련대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작년 11월말에 구속되어 지금 현재 대구교도소에 12번으로 수감 중입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형소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김대원 대표께

형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입니다.

출소하고 한참만에야 이런저런 생각 끝에 뒤늦게 편지 한 통 보냈었지요. 답장이 없어서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그 사이 통 소식 전하지 못한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제 섭섭했던 마음 솔직하게 전하고 싶고 제 부족함도 냉정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남도의 어디메쯤 있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어디라고 알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형의 고향, 강진도 이 근처 어디인지 모르겠군요. 얇으막한 산 중턱에서 바라보면 노랗게 익은 보리밭(누군가 보리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의 광활한 벌판 너머로 바다가 보입니다. 그 너머로는 산의 능선이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느즈막히 일어나서 뒷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와서 오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르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생활의 풍부함을 통해서든, 간접경험을 통해서든, 혹은 자연의 유다란 감성을 통해서든 생활과 정신을 환기하는 것은 갇힌 나의 시야와 심성과 생활을 넓여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빗속에서 앞마당과 대문 앞에 비질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개가 3마리가 있는데 벌써 며칠째가 됐음에도 저를 보면 짖어대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저 개들은 무슨 생각에 저렇게 짖어대는 것일까요? 애기로만 듣던 형의 개 다루는 솜씨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책을 좀 보다가 형에게 편지를 쓰려고 인터넷과 컴퓨터를 찾아 여기 시내까지 나왔습니다. 외길로 난 철길은 따라 시내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간짜리 통일호가 달리는 철길입니다. 서로 스쳐 지나갈 인연이 없는 외길의 철길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들녘, 가옥들과, 철길, 이곳 PC방의 젊은이들까지, 여기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산

천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반도, 우리 민족의 터전입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어디를 보나 가슴이 아린 것은 여기가 분단 조국, 내 조국이라는 사실 때문이겠죠? 그러면서도 가슴 한끝 온기가 전해지는 것은 나를 키워주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 땅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 땅을 떠나려고 한답니다. 그것은 마치도 드라마 대사로나 들던 부모자식지간에 연을 끊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민족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인연일런지...

형, 형은 아직 그곳에 계시군요. 홀로 계신 어머니 두고 북으로 향한 것이 벌써 4년 전의 일이고, 2년 동안 북과 해외를 오가는 생활을 보냈는데 아직 형은 감옥이라는데 계시는군요...

고난 속에서도 웃음이 넘쳤다는 북녘동포들의 모습처럼 시련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으로 형의 삶에 승리를 안아오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낙관은 승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위협과 굶주림 속에서 광명성1호를 준비하고 결국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고 더불어 6.15 시대를 열어낸 북녘동포들의 낙관이 그러했듯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굳은 의지, 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일거야 할 것입니다.

이곳엔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빗소리도 나쁘지는 않은데 맑은 날씨의 하늘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해 북녘 친구들이 형앞으로 보낸 편지를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 벌써 1년 전의 일인데 형이 그 편지들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겠지만 형의 굳은 신념과 열정의 찬 투쟁의 의지처가 되셨으면 합니다.

형, 옥중 투쟁의 주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연락하겠습니다.

2002년 5월 15일 헤로 보냅니다.

- 황혜로님은 1998년 10차 범민족대회에 한총련대표로 방북하고 돌아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2년 6개월 징역을 만기로 보내고 지난 3월초에 출소하여 현재 범청학련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푸른 수의의 그들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김소중 민혁당사건 하영옥님의 아내

5월 11일 토요일,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별
러 오던 심재춘(민혁당 사건으로 대구교도소
에 3년 6월형을 받고 수감중)씨를 보기 위한 여정 길에
올랐다. 이정태 운영위원과 권오현 회장님까지 모시고
가는 행운을 안고서...

마침 대전교도소에 있는 남편 하영옥씨와 관련된 부
당한 처우 개선 등의 문제로 지난 4월에 항의 집회가 있
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도 할 겸 가는 길
에 남편의 면회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새벽 일찍 서두른
우리는 대전에 9시가 조금 넘어 도착할 수 있었다. 대전
민가협 회원들과 30여분에 걸친 소장 면담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은 현재 남편과 갈등관계에 있어서인지 다분히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어쨌든 권오현
회장의 주선으로 남편과의 특별접견을 하게 되었다.
하영옥씨의 단식이후의 건강상태는 양호해 보였으나 교
도소 측이 형식적인 전방조치만 철회한 상황으로 이전
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모처럼 권오현
회장과 많은 동지들을 만난 기쁨 때문인지 밝은 표정
이었다. 그를 뒤로하고 우리는 대구로 향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의엽(민혁당 2차 사건으
로 구속되었다가 작년 6월 석방)씨를 만나 심재춘씨를
비롯한 정기에, 문보준, 송영우씨의 면회를 하기로 하
였다. 우리는 마치 1:1의 미팅을 하듯 한 명씩 상대를 정
하고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나의 파트너는 심재춘씨였
다.

권회장의 짝(?)인 송영우(한총련 관련)씨는 역시
썩썩하고 해맑은 모습이었는데 마침 전날 하영옥선배
생각을 했더니 나를 반겨 주었다. 이정태씨가 만난 정기
애(효성 노조)씨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당찬 느낌을 주
는 여성동지였다.

나의 차례가 되었다. 심재춘씨는 재판정에서 볼 때와
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 아마도 바뀐 안경테와 이젠
징역4년차의 관록이 붙은 때문 아니었을까 싶었다. 오

히려 밖에 있는 나를 간혀 있는 심재춘씨가 따뜻하게 배
려해주고 있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음
에도 불구하고 사이 좋은 형수와 시동생처럼 편안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리라. 특히, 요즘 어머니의 병간호
를 하고 있는 부인 이문희씨에 대한 격려와 사랑하는 마
음을 전할때는 나의 마음까지 먹먹해졌다. 심재춘씨는
TV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교도소 측과 협의중이라고 하
였다. 처음의 상황에 비하여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는
측면이 많아 생활하기가 좋아 졌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의엽씨가 문보준(월곡동 철거관련)씨
를 만났는데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탓에 단 한 줄의
내용도 전하지 못함이 아쉬울 따름이다.

어느 곳을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대하는 푸른
수의의 그들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교도소문을 나서며,
처음 만나 20분, 때로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나누는 대화의 여운이 가시질 않고 나의 눈시울을
적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조국사랑' 이 너
무나도 절절하여 겹겹의 철창 속에서 묶인 몸이 되었지
만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
기 때문은 아닐까?

올라오는 길은 중앙고속도로로 안동과 단양을 거치
며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산자락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코스는 권오현 회장님께서 낮에는 더욱 아름다운 풍치
를 즐길 수 있노라며 적극 권유한 길이기도 하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고단한 몸과는 달리 좋
은 사람들을 가슴 가득 벅차도록 담아와서인지 마음은
벌써 하늘을 날고 있었다. 여름 휴가를 전국을 돌며 '면
회순례(?)' 를 하게 된다면 몇 년 동안 갖지 못했던 휴가
의 체증이 말끔히 가시리란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면회를 마치고 이문희씨가 전화로 권하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와 소주 한잔을 나누는 우리는 대구 민가협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길을 서둘렀다.

대구 민가협 회원 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권오현
회장의 노래 선물(?)까지 받았는데 지금까지 뵈었던

그것은 신념이었다

이일규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원



산행이 있기 전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지방(광주)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녀석들이라 부담 없이 한잔씩 하다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다. 다음날 양심수 후원회 산행이 있어 조금만 마시려고 했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술이라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난 뺏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시계는 정확히 아침 9:0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뿔싸, 웬수놈의술.

역시나 늦게 도착.

양심수 후원회에 가입하고 두 번째 참여하는 일정인데 나 때문에 산행이 한시가 가량 지연되고 있었다. 어찌나 몸둘 바를 모르겠던지... 선생님들은 시간엄수를 철저히 지키신다고 들었는데... 술이 덜 깨 망가진 얼굴로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해대며 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꽃피는 봄. 4월. 우리가 걸었던 길이 진달래 능선이라고 한다. 한철 꽃을 피우고 이제 시들어져 가는 진달래들이 길가를 따라 한없이 이어져 있었다. 어렸을 적 길가에 피어 있는 진달래를 한 입 따다 먹으면 상큼한 향이 입안 가득히 퍼지던 기억이 났다. 찻잔 내년에 다시 와서 진달래로 내 허기진 배를 채워 주리라...

진달래 못지않게 많았던 꽃이 철쭉이었다. 사철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화사하게 봄에 피는 철쭉. 제 할 일을 마

치고 시드는 진달래꽃들 사이로 이제는 자기들 차례라는 듯 참으로 많이도 피어 있었다.

서울은 답답하고 불쾌 지수가 꽤나 높은 동네로만 알고 있었는데, 거참... 서울에 이런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산이 있었다니... 아가자기한 산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이 함께 가는 후원회 산행.

나와 돌, 흙이 만나 힘을 합쳐 큰산이 되었듯이 나이가 틀리고 하는 일이 달라도 조금씩 마음을 보탬 수 있다면 큰 산만 못할게 뭐가 있을까.

모두가 열심히 산을 올라가는데 난 왜 이리도 기력이 떨어지는지. 아이고 힘들어라. 참으로 어설픈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나비처럼 날아다니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끝까지 등산을 함께 하신 선생님. 어디서 저런 힘들이 나오시는지... 역시 사람을 살아가 있게 하는 건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이었다. 한참 올라가던 중 점심때가 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먹을거리들. 산에서 먹는 밥맛은 산에 올라간 사람만이 느끼는 특권일 것이다. 밥맛 한번 좋다. 죽밥, 김밥, 맛있는 반찬들. 먹다보니 어느새 바닥이 났다. 아 쪼끔 아쉽다. 역시 난 아직도 신념보다는 밥이 더 우선인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각자 소개하는 시간과 간단한 시사토론이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 소개할 때 나는 다시 한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뿌드득,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않으리라. 자기소개 후 아리랑 축전과 관련, 현 정세에 대한 간단한 시사토론이 있었다. 지금이 2002년. 남북한이 하나되는날이 금방 오겠지...

끝까지 산행을 완수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뒤풀이로 맛있는 밥을 사주신 교수님. 2차로 맥주집에서 즐겁게 이야기했던 선생님, 형, 누나들. 인생에 있어 기억되는 몇 안 되는 날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이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번 산행이 기다려진다. 늦지 말아야지.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김재환 역사강좌 참가자, '국선도' 회원

매달 있는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강의에 대한 감상을 써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미리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조금 더 강의에 집중하며 내용이며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강의를 들은 지 꽤 시간이 흐르는데다가 내용도 이전 강의에 비해 어려웠는데...

4월의 마지막 일요일, 낙성대에 도착해보니 평소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 모여있었다. 총회다, 모임이다 많이 빠져나가서 인원은 스무 명 남짓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번 강의는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에 역사교과서에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었다.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이 많이 달랐다. 북한의 관점은 김일성 중심의 시각이었고, 남한은 김일성의 부정 내지는 부분적인 인정 또는 긍정적인 평가 등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이 시기 국내의 민족해방운동은 크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후에 건국준비위원회의 모태가 되는 건국동맹 등으로 나뉘어 지고, 민족주의는 일제에 투항하거나 친일파로 변신을 하고 사회주의는 혁명적 노조, 농조를 통한 해방운동을 하였으나 통일적 지도하에 전개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 파벌이 개별적으로 전개되었던 까닭에 일제의 집중적 타격에 쉽게 굴복 당하고 8.15후에 노동운동, 지방인민위원회 운동 등으로 계승되어간다.

해외에서의 해방운동은 크게 만주, 관내 중국, 화북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동만주는 동북항일연군이, 남만주는 조선혁명군이, 북만주는 한국독립군이 활동하였으며 만주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국내의 민족해방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위축되어가던 때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대표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재만 조선인 빈농, 공산주의자 중심에서 점차 중국인과 조선인 중농, 부농, 민족주의자까지 포함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이 실천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된다. 관내 중국에서는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등이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후에 민족혁명당의 분열은 중국

전선에 있어서의 좌익진영을 통합하여 민족연합전선 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어지며 민족혁명당 결성으로 위기에 처했던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연합하여 다시 활성화되어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전국연합전선협회 결성을 추진했으나 이념적 차이로 실패하고 한국독립당을 결성한다. 민족혁명당내의 사회주의자들과 무장항쟁을 원하던 조선의용대원들과 중공의 대장정에 참여했던 조선인이 연합하여 화북조선인청년연합을 결성하고 화북조선인청년연합은 후에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개칭하고 핵심 세력이 공산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강령을 내걸었다. 서로의 이념은 달랐지만 조국의 해방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았고, 모두에게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음을 느낀다.

가슴에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70-80년 전 그분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던, 민족주의 계열이던 그분들이 해방 후 만들고자 했던 조국의 모습이 같았고 그 조국의 모습은 지방자치제, 노동운동의 자유, 의무교육실시, 사회보장제도실시, 남녀평등, 일제의 공유재산 및 민족반역자 재산의 공유화 등 지금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그 당시에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 부분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함 느낌이 들었다. 척박한 이역만리에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며 만들고자 했던 조국의 모습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항일무장투쟁이 중심이었고 그 중심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는 있지만 역사의 기록에는 없고 역사적 사실이지만 역사의 평가는 없었다.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이건 민족주의자들이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해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그 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다. 70-80년 전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분들은 주저 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그것은 '조국의 해방' 이라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4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칙개정안채택(12조 기구속에 사무국 신설-시행세칙을 운영위에서 결정, 다음 회기때 인준받기로)하고 새일꾼 선출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회장단, 운영위원 유임시키고, 감사선출에서는 노중선, 진관스님, 강정구 교수를 직접 선출했습니다. 일꾼들 인사하기 전에 권오헌 회장이 박용길, 김승훈, 홍근수, 김규철, 김영옥, 김금수 선생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4차 정기총회가 회원과 축하 손님 등 18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본행사가 있기 전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평양에서 뵈었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 모습 등 송환관련 영상물을 상영했고 이어 이기욱 부회장 사회로 개회선언과 민중의례로 양심수후원회 제1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는 말씀으로 박용길 장로님(지도위원), 오신분 소개(권오헌대표)에 이어 이종린(범민련의장), 임방규(통일광장대표), 조순덕(민가협상임의장) 격려 및 축사가 있었고 노래패 '우리나라'의 축가가 있었습니다. 이어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홍근수 총준위원장), 13차년도 사업보고(권오헌회장), 13차년도 감사보고(노중선, 진관스님-감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고 지난 1년 사업과 관련 모범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회비를 오랫동안 내주신 박정희(오지못함), 정경락(오지 못함), 박은영(오심), 김재원, 여혜정, 갈현동후원회, 홈페이지관리모임 순으로 박용길, 홍근수, 임기란, 고성화, 권오헌 대표단이 증정하였습니다.

원, 감사, 회장단, 운영위원, 사무국간사 모두 나와 인사 하였습니다. 연이어 모성룡 운영위원이 제안 설명한 14차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특별결의문(곽인석 낭독-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과 총회결의문(김호낭독)을 모두 손뼉쳐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1부순서를 마친 다음, 2부는 지하식당에서 오신 분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며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후원회원말고도 민가협 어머님들, 유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자통, 통일연대, 자통협, 4월혁명회, 범청학련, 천주교장기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동의대사건가족 등 많은 사회단체 대표와 성원들이 축하손님으로 와주셨고 특히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음성 등 지방에서 장기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신 정순덕 선생님과 황영태 선생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어 눈길을 모았습니다. 또한, 김근태, 김희선님 등 국회의원들이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14차 총회에서 새로 뽑힌 일꾼들

[지도위원]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
 김금수 (민주노총 고문위원)
 김승훈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영옥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박용길 (통일맞이 대표)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회 장]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부 회 장]

김지영 (김지영 내과의원 원장)
 이기욱 (민변 변호사)

[운영위원]

김호현 ((주)창미디어 대표)
 송경용 (신부, 나눔의 집 운영)
 이정규 (가정주부)
 탁무권 (노원문고 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모성룡 (홍제 현대유치원 원장)
 이정태 (민족무예 경당 사범)

[감 사]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진 관 (스님, 불교 인권위원장)
 노중선 (4월 혁명회 사무국장)

간사로 이창희님과 작년 1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고광희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회원

★ **곽정희님**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실한 회비납부 등 큰 성원을 오랫동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영님**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실한 회비납부 등 큰 성원을 오랫동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락님**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실한 회비납부 등 큰 성원을 오랫동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득행 · 양계숙님** 양심수후원회 회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후원회의 여러 행사 때마다 큰손 발이 되어 어려운 봉사를 앞장서 해주셨고, 고봉희 할머니를 비롯한, 양심수와 관련된 분들에게 외로움을 나누는 등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님** 통일조국의 념원을 안고 수십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다 풀려난 비전향 장기구금양심수의 손 · 발이 되어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였고, 9.2송환 뒤에도 오늘까지 만남의 집에 정기적으로 오시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여혜정님**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큰 성원을 다해 주시면서, 후원회 소식 편집디자인을 오랫동안 맡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갈현동후원모임** 위 후원모임은 수십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다 풀려난 비전향 장기구금양심수들이 함께 하고 있던 갈현동 만남의집 선생님들께 온갖 정성을 다해 후원을 하였고, 그 분들이 송환된 뒤에도 남아 있는 외로운 선생님들께 한결같이 성원을 다 하고 있음이 남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관리모임** 위 모임은 양심수후원회의 오랜 바램이었던 홈페이지를 제작 · 개설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바쁜 시간과 정성을 다 내어 헌신한 결과 양심수후원회와 하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결의문

비전향장기수 33명의 2차송환을 촉구한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온 세계의 양심의 요구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의 1차송환이 이루어졌었다. 6·15공동선언 이행의 첫걸음 이면서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인도주의 정신의 승리이기도 했다. 수십 년을 간혀 있으면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양심을 지켜오던 이들에게 양심수후원회는 거리낌없이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운동과 후원 사업을 해왔고 마침내 260여 장기구금 양심수 모두를 구출하고 비전향장기수 63명의 1차 송환을 이루어냈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을 염원해 오며 정의·평화·인권을 지키고 부당하게 고난 당하고 있는 양심수편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비전향장기수송환의 역사적 성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오늘 다시 14차 총회를 맞아 회원 모두의 뜻으로 새로 신청한 33명의 2차 송환을 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9.2송환에서 빠진 정순택, 정순덕노인을 비롯하여 1차 송환때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과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아래 인간이 건딜 수 없는 한계상황의 살인적 고문 등 강제전향공작에서 본인의지에 관계없이 전향 당한 분들이 당연히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 33명 가운데는 절반이 넘는 분들이 전쟁포로이고 대부분 70이 넘는 고령이며 병약한 분들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제로서 정다웠던 고향, 그리운 가족을 만나야 하는 인도주의 정신에서, 본인이 원하고 있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측면에서도 이분들은 반드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다른 인권·종교·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반드시 함께 해야할 비전향장기수의 2차 송환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1차 송환때 함께 가지 못했던 고봉희 할머니를 비롯한 가정을 이루었던 가족들이 인도주의 정신에서 반드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2년 4월 27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총회결의문

우리는 오늘 어떠한 외세의 방해·책동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자주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로써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란 역사적 임무와,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석방·정치수배 해제 등 정의·평화·인권실현이란 시급한 당면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 임기말과 정권교체를 앞둔 오늘 이 땅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에서 부정비리, 빈부격차, 부도덕과 사회적 불신으로 가득차 있으면서도 인권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약속해왔던 민주주의발전, 인권개선, 사회정의실현 등 개혁과 변화는 아예 실종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잇단, 권력주변의 부정비리와 이를 빌미삼아 개혁방향까지 발목잡고 있는 수구냉전 세력사이에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싸움이 이어오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극소수 기득권세력을 위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기층민중을 올리는 위급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반민족·반민중·반인권 행패속에 6·15남북공동선언에 정면배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는커녕 독소조항 없애는 개정마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또 다른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테러방지법을 미국의 강요속에 국정원 주도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민족·반인권 조건에서 지난 한 해동안 408명의 양심수가 구속되고 범민련·한총련의 이적규정에 따른 수백명의 청년학생들이 쫓기고 있었다.

특히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바람속에 구조조정·정리해고가 잇따르고 WTO체제아래 수입개방정책 등 농민·농업·농촌이 파멸 당하고 있었다. 이같은 조건에서 기층민중의 생존과 투쟁은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속에 지난 한 해 25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조국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미·일의 전

쟁책동에 따른 엄중한 정세속에 지난 1년을 보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북강경정책과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정책까지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 남북사이엔 대화가 끊기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시는 '악의 축' 발언과 핵선제공격위협까지 하면서 이땅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처럼 조국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강매하고 있으며 군사력에 의한 세계제패정책과 미국이익을 위한 세계화·구조조정을 강요하여 경제침탈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오늘 이 땅에서 양심수를 놓게 하는 중요 원인은 분단체제, 국가보안법, 폭압기구말고도 바로 미국의 세계지배야욕에서 비롯되고 있는 개탄할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통일운동·학생운동·노동운동·사회진보운동은 바로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분단고착·긴장조성·세계화·구조조정·수입개방·투자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나라 안팎의 엄중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이 늦어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인도주의의 차원에 따라 2차송환희망자 33명이 올해안에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양심수석방과 후원사업을 해야 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폐지와 테러방지법제정을 저지시키고 양심수석방·정치수배해제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고성화·정순택·정순덕노인등 33명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2차송환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하나, 통일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일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4월 27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고마운 것들

노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따르릉 따르따르릉”

새벽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에 잔뜩 졸린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아직 예정일이 12일이나 남았는데 참 성질 급한 놈이구먼.

충주에 있는 산부인과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그 후 1시간 40분이 흐르고 너무나도 예쁜 딸 헤민이가 3.3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빠와 할머니 두 분과의 첫 만남이 신기한 듯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었다.

헤민이를 낳기 전 최민희씨의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란 책을 열심히 본 아내는 48시간의 단식을 실행에 옮긴다며 배고프다고 앵앵 울어대는 딸내미에게 보리차만 무던히도 먹였다. 그사이 나는 눈이 두꺼지, 손가락, 발가락 숫자는 맞는지 이리저리 살피며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얼마 후 얼굴이 빨개지도록 인상을 쓰며 울던 헤민이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똥을 누기 시작했다. 아니! 이렇게 새카만 똥이 나오다니. 말로만 들던 태변이었다. 태변은 성장 이후에도 장에 쌓여 아토피 등 해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처음 모질게 먹었던 마음은 배고픔에 계속 울어대는 헤민이에게 40시간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하지만 그사이 새카만 태변을 10여번이 넘도록 보는 쾌거를 올렸다. 그 후 초유를 먹고 풍만함에 새근새근 잠이든 헤민이를 보며 첫 번째 대사를 치른 안도감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후 5년간 아기가 없어 마음고생 하던 아내가 헤민이의 탄생으로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안 그래도 예쁜 딸내미가 더욱 예뻐 보였다.

아내와 나는 대학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만났다. 군대까지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늦깎

이 예비역과 일찌감치 소문이 나서 남들 다하는 연애했던 제대로 못하고 대학시절을 보냈다. 특히 4학년 때는 선전국 라인에서 강력 추천된 총학생회 선전국장을 회장과 소문난 여자(?)라는 이유로 포기해야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학생회 활동이 바쁘다는 핑계로 표현력이 엄청 부족한 나에게 딱 두 번의 불만(그날 술 한잔에 취하는 아내는 길거리에 뺨을 정도로 과음을 했다)을 토로하고 무던히도 잘 이겨 내준 아내에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대학생활의 가장 큰 성과물(?)인 아내와 졸업 후 2년 만에 결혼에 성공. 아내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을텐데 지금껏 잘 살아오고 있다. 그동안 때때로 힘이 드는 일도 있었지만 양심수후원회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님들과의 만남, 너무나도 멋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정 그리고 생활에 매몰되기보다는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고민과 실천 등에서 아내와 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곤 한다.

특히, 옴시롱감시롱에 대한 고마움은 표현할 길이 없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보는 기행이 삶의 활력이 됨은 물론이고 형제 이상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분위기는 한번 맛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 곧바로 옴시롱감시롱이란 마약에 중독되고 만다. 아내는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을 나누고 서로 생활의 정보도 나눌 수 있는 형, 누나들이 있어 너무나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 나에게 쏟아지는 누나들의 잔소리에도 고마운 정이 철철 넘쳐나나 보다. ✎

● 노혁님은 옴시롱감시롱 회원이며, 현재 회사원으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사업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소개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여러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회원교육과 시사강좌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배우는 '시사모임' (송창학 016-235-3726)
- ▶ 우리의 새로운 얼굴로 널리 등장할 '홈페이지관리모임' (장재영 02-977-8363)
- ▶ '후원회 소식' 을 만들며 글쓰기를 서로 나누는 '편집모임' (이승미 016-395-0725)
- ▶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장기수선생님후원모임' (이정태 017-281-5500)
- ▶ 양심수와 따뜻한 공감을 형성하는 '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고광희 017-230-7593)
-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원사업모임' (노혁 019-323-0598)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출소장기수선생님 주소록에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선생님들 주소를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기세문 선생님: 1934.01.20

062-574-0100 광주 북구 매곡동200-3 민족생활학교 자연건강회

류락진 선생님: 1928.08.26

062-573-2728 광주 북구 매곡동 132번지 2층

박봉현 선생님: 1919.08.18

063-243-0903 전북 전주 덕진구 인후1동 현대아파트103동1102호

안재구 선생님: 1933.10.24

081-213-5256 경기 수원 팔달구 우만2동 주공2단지 207동 406호

최공식 선생님: 1926.09.27

061-356-6747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73

허영철 선생님: 1920.

063-547-2178 전북 김제시 옥산리 384-1

5월 산행



신록의 계절, 5월이 왔습니다.
초록을 보며 눈의 피로를 덜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봅시다.

일 시: 5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관악산 낙성대역 서울대방면 매표소

준비물: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지하철 2호선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
6강이 열립니다.

우리의 발로 서울을 둘러보며
한국현대사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일 시: 6월 2일 일요일 오전 9시30분

장 소: 운현궁 정문 앞

차 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젊은 회원들이 힘을 모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한총련 5월축전 및 출범식에 장터를 열어 그 수익금 중 절반인 327,690원을 양심수에게 보내는 영치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충청로 전대협 동우회 사무실에서 한총련-대책위 집행회의 열림. 한총련10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문제와 관련, 검찰총장·경찰청장 면담, 한총련 강령개정 공청회, 대책위이름 광고·기자회견 여는 문제 등 협의. 정진우, 정명수, 강위원, 이창희, 권오현 함께 함.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공석)는 1978년 당시 법무부장관 명의의 예규로,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사항'을 비롯하여 '전향공작서 매월작성보고', '극렬비전향수에 대한 전향기술을 연구개발해 성과를 보고할 것' 등 전향공작실체를 입증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공문을 확보했다고 밝힘-현재 규명위에는 박용서 씨등 5명에 대한 의문사 지상규명 신청이 접수되어 있음.

 자통협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제출.

02  발전노조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조 2차 총파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노·정협상이 합의되어 발전노조는 37일만에 총파업이 철회되고 발전노조는 3일부터 업무복귀하기로 함. 수도권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던 2000여 노조원들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밤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헤어짐. 그러나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내부에서 '민영화 관련 논의대상제외'와 관련 반발이 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을 열고 14차총회준비등 노력할 것을 결의. 노혁, 이승미, 이정태, 장재영, 송창학, 이창희, 고광희, 박인석 함께 함.

03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오전

평양에 도착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2일의 노정합의안을 폐기하고 민주노총 임원진 모두가 사퇴하기로 결정-노정합의 내용이 한달 넘게 힘들게 싸워 온 파업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전국 11개 지역별로 지도부 구성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하여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인 차봉천(국회사무처 6급)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 공식 출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임동규 선생님을 이정태회원이 면회함.

04  신문로 6월사랑방에서 '6월항쟁 15주년 사업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6,8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와 6월항쟁 기념행사등을 함께 하기로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2돌 행사는 별도로 하기로 함-권오현 계승연대 대표로 참석.

 민가협 421회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범청학련 관련자 구속과 관련 규탄결의 집회에 참석.

 서울교대 교정에서, 1986년 학원자주화운동을 하다 산화해 간 박선영·남태현열사 합동추모제가 열렸고, 성신여대교정에서는 권희정열사 추모제가 열렸음.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특사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원장을 면담하고 대통령 친서 전달.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등 정당·시민·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강남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무력침공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음.

경찰이 연행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알몸수색을 하는 만행을 저질러 분노를 사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지난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시그네텍스 여성조합원 7명을 불법 강제연행한 뒤 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하여 금속연맹과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항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힘.

05 이진 회원 아버님 이진 이해남님께서 신장질환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 4일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강남 시립병원 영안실에 모셔져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6일에 발인하고 화장하여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종린선생님을 비롯하여 노혁, 변의숙, 이득행, 양계숙, 오영순, 이창희, 고광희, 김호, 이정태, 송창학, 박인석, 박지윤, 한수정, 장재영, 한찬욱, 권오현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06 종로2가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 해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토요캠페인’ 첫날 행사를 시작함. 캠페인 정치연설, 전단배포, 서명운동을 함께 했음. 주체단체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범청학련 관련자 구속자대책위원회, 미 상공회의소 접거농성 구속자석방 대책위원회, 소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대책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범민련후원회등이 함께 하고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변의숙, 이승미, 노혁, 송창학, 이정태, 오영순, 이진, 이창희, 고광희, 김호, 김숙희, 권오현외 함께.

남과 북은 서울과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관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함.

1)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을

존중,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2) 6·15 공동선언 합의사항에 따라 동결됐던 남북관계 원상회복.

3) 동해선 철도, 도로, 서울-신의주 철도, 문산-개성도로 빨리 연결.

4) 대화, 협력사업 적극추진-경추위 2차회의를 5월 7-10 사이 서울개최. 분야별 실무협의회 가동,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자회담 6.11-금강산에서 개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4.28일부터 금강산에서.

5)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재개에 대해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에 따라 협력 등.

홈페이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득행, 양계숙, 오수강, 장재영, 김기홍, 고광희회원 함께 함.

07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의 역사강좌가 열림. 근·현대사 4강 ‘1920-30년대, 식민지 수탈과 민족해방운동’-모두 38명이 수강한 이날은 강의와 비디오 상영, 질의응답, 뒤풀이에서까지 강의와 토론이 이어짐.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 선생님께서 69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함께 계신 문상봉 선생님도 같이 식당에 모시고 가서 조출한 점심식사를 하며 생신을 축하해 드렸고 역사강좌가 끝난 다음 강좌에 온 회원 모두가 함께 생신 케익에 꽂힌 촛불을 끄시는 선생님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꼭 그리운 북녘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이 범민련후원회 사무국장 강병식님을 신부로 맞아 을지로 도로교통안전협회 예식부에서 두 집 부모

님과 축하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축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08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의 대표자, 집행 위일꾼들 연석회의 열다. 회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사회로 모임성격 - 인사말(권오현) 조직현황과 한총련이야기 보급현황보고(이창희)를 들은 다음 검찰청·경찰청방문계획, 신문광고, 기자회견등 한총련 10기 대의원대회를 앞둔 대책등 협의.



-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총련-대책위 주최로 한총련 강령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개정안 발제(한총련대변인 윤경희[홍익대]), 약정토론(김승교-변호사, 송영길-국회의원, 이남주-성공회대학교수, 정명수-전대협동우회장, 정지환-월간 '말' 기자)이 있었음. 공청회에 앞서 대책위 손장래고문, 오종렬공동상임대표, 이강실 여연대표의 격려말이 있었고 방청석에서 노수희, 이관복대표 등의 의견말이 있었음.
- ✨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인혁당대책위원회와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주최로 인혁당사건 희생자 27주기 추도모임 '님이어! 부활하소서' 진행.
- ✨ 경희대 수원배움터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4월혁명, 민족통일

운동, 민주변혁운동자' 이수병 선생 27주기 추모식을 열었음.

- 09 ✨ 한총련-대책위 오종렬, 권오현, 정명수대표와 이창희 간사는 대검찰청을 방문 공안2과장(주철현 부장검사)을 만나 한총련 10기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과 한총련대의원등 수배해제 조치를 촉구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 지적하며 한총련에 대한 인식전환 강조. 그러나 검찰은 실정법과 대법원 판시를 말하며 앞으로 한총련의 움직임을 지켜 보겠다며 유연성을 보였음.

- ✨ 민혁당 사건으로 8년 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인 하영옥씨가 부당하게 조사실수등과 관련 권성희 어머님께서 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상회복 촉구.

- ✨ 회원사업팀 모임을 갖고 14차총회 전화알림작업에 대한 마지막 점검회의를 가짐. 박인석, 변의숙, 고광희회원 함께 함.

- ✨ 14차 총회 전화알림작업을 위해 15명의 자원봉사자(송창학, 오수장, 김호, 서미영, 김민정, 변의숙, 이승미, 김숙희, 한수정, 양계숙, 박인석, 이창희, 오영순, 이진, 노혁)가 꾸려져 첫 모임을 갖고 전화작업요령등을 설명받음. 그리고 2주간의 전화작업에 들어감.

- ✨ 노혁·도은주 회원님께서 예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10 ✨ 2000년 9.2송환으로 복역으로 가신 박완규선생님 73회 생신을 맞아 갈현동후원모임에서 생신축하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내다.

-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총련과 한총련-대책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안 당국에 대해 한총련 10기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

- ✨ 범민련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3

년형을 살고 만기출소한 최진수씨가 10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체포됨. 경찰은 출소후 신고하지 않고 3개월마다 보고하지 않았으며 관찰지 이탈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최진수씨는 보안관찰법이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등 헌법에 위배됨을 강조, 진술을 거부하고 47시간만에 풀려남. 그러나 불구속 입건된 상태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임동규 선생님을 이정태회원이 면회함.

11 민가협 422회 목요집회 - '테러방지법 저지' 내용으로 진행됨. 어머님들 거리로 나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 받으시다. 여는 말:임기란 前 상임의장, 문화공연(성균관대 노래패 아우성), 테러방지법 제정반대와 서명 촉구발언: 이영어 어님, 서경순 前 의장, 권오현 공동대표

한총련 10기 대의원대회와 관련 경찰청 방문 평화적 개최보장 촉구. 오종렬, 권오현, 정명수대책위 대표와 이창희집행간사 함께함.

제15기 서총련 출범식이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청년학생들이 흥익대학교에 모여 열었음.

12 한총련 제10기 대의원대회가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12일-14일까지 열렸음. 전야제 한마당과 10기 새 일꾼들을 뽑았는데 한총련 의장엔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며 임시 의장이었던 김형주 학생이 뽑혔음. 서울에서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12일 현장에 갔다가 13일에 올라왔음. 이창희, 권오현 다녀옴.

민가협등 95개 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원 권한확대와 인권소지를 안고 있는 테러방지법 전면 폐기를 촉구.

13 탐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석방·정치수배해제·한총련이적규정을 위한 토요캠페인'이 열림. 이창희간사 함께 함.

13-14 옴시롱 감시롱 제31회 정기기행 떠남. '봄날 해풍에 실려오는 차(茶) 향기-보성차밭, 그리고 태백산맥의 무대 별교를 찾아서'-모두 62명이 함께하여 13일 15시30분 전세버스로 서울을 출발 대전-광주-보성-울포해수욕장까지 가는동안 멋지고 독특한 자기소개시간을 가졌음. 21시30분 숙소에 도착 낙지찌개로 저녁 식사를 마친다음 방 배정과 여장을 푼 다음 남도의 바다내음과 함께 흥겨운 뒤풀이로 기행 첫 날을 보냈음. 둘째날은 아침 일찍 해수욕탕 목욕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어죽으로 배를 채우고 8시30분 은곡다원으로 떠남. 넓게 펼쳐진 그림 같은 차밭들이 계단식으로 등고선을 이루고 있었음. 울창한(?)대나무숲 삼나무 길-저마다 사진도 찍고 은곡 다원에서 낭만적인 차도 마시고 그리고 득량만 해수욕장으로, 옛날처럼 말을 타기도 했음. 다시 별교-태백산맥에 나오는 소화다리, 홍교도답사, 여기에서 별교사랑회 정상후회장의 역사(?)설명을 듣고 13시 순천 선암사로 떠남. 절 입구 '정문식당'에서 오리구이, 닭 백숙 등으로 위를 가득 채우고 선암사 경내로-태고종사찰인 이가람은 여·순항쟁과 전재기간 빨치산활동의 주요 무대였던 조계산 중턱에 자리잡은 고려초에 창건되어 보물 3층석탑(395호), 승선교(400호)등이 있는 고찰로서 가람배치가 운치있고 조화로웠음. 이 절 주지이신 지현스님과의 '산중다담' 시간도 갖고 선암사에서만이 생산되는 전통 우리차에 대한 지현스님의 높은 긍지의 말씀도 들었음. 우리는 조계산에서 송광사와 함께 쌍벽

을 이루는 이 고찰을 떠나 서울로 차를 몰아 오는 길에 기행평가 시간도 갖고 23시 양재역에 도착.

- 14 ✎ 동국대 상록원에서 장기구금양심수들의 친목 모임인 통일광장이 결성 2들을 맞아 선생님들과 사회단체와 청년단체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기념식과 연회가 열렸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 15 ✎ 중국 국제항공소속 CCA-129편 보잉 767 여객기가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편 신어산 자락에 추락 승객 승무원 166명 가운데 1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 39명만이 구조 되었음.

✎ 파업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귀한 발전노조원들에게 회사쪽이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어 노조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서발전은 3.25일 이후 복귀한 조합원 753 명에게 900만원씩 가압류했고, 남동발전은 몇 명을 선발 해 16억-31 억원을 가압류했다. 여수발전과 남동발전 본사에서 2명이 31억 2050만원씩 가압류당했고 서인천발전 노조원에게는 16억원을 가압류했다.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이날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속단체회원들이 테러방지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 16 ✎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하영옥씨가 부당하게 조사실에 수용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민가협회원들이 교도소에 항의방문 하다. 민가협회원들은 서무과 1층을 점거농성 하며 소장면담을 요청, 조순덕상임의장과 임기란 전 상임의장을 대표로 소장을 만나 보안과장과 하영옥씨가 함께 한 가운데 이정훈보안계장의 사과, 4월안으로 원상회복등을 약속받고 하영

옥씨는 이날로 단식을 마침. 조순덕, 임기란, 김정숙, 이영, 이정남, 이귀임, 김순심회원과 박성희간사, 권오현공동의장이 함께했고 민협당관련 가족들과 청년단체회원등 30여명이 서무과 건물 밖 건물에서 농성 집회를 했음.

✎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단칸 셋방에 혼자 살고 계시며, 20년이 넘게 육고를 치루고 나오신 장광명선생님께 그동안 밀린 셋돈 900,000원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14차 총회준비위 2차 모임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음. 모임에선 14차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규약개정안, 모범회원 선정, 총회보고서 내용검토, 특별결의문, 총회결의문등을 심의하였고 총회진행등을 결정하였음.

- 17 ✎ 윤희보선생님(9.2송환) 처제이신 박순애님께서 4.13일 허리를 다쳐(방안에서 넘어져) 가까운 한일병원에 입원하시었으나 심장병등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다하여 집으로 돌아와 투병하시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음) 오늘 이대부속병원 952호실에 입원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X-선등 검진결과 척추뼈가 눌려진 상태이며 약 1주일정도 지내면 허리압박대를 착용하고 걸을 수 있을 것이란 담당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선생님께서서는 2주일 정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입원 하셨다가 4.30일 일단 집으로 퇴원하여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임동규 선생님을 이정태회원이 면회함.

✎ 중국동에서 혼자 사시는 고봉희할머니께 다녀왔습니다. 광인석, 변의숙, 양계숙, 이득행회원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18 민가협 423회 목요일집회 - 여는 말:임기란 前 상임의장,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광열 활동가: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단식농성을 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활동방향, 이정님 어머니: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발언, 권오현공동대표:테러방지법의 본질 설명, 이관복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박정희기념관 몰래 착공사실 등 발언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4월혁명회 주최로 4월혁명 42돌 선언문 발표와 4월혁명 시상식(전국농민회총연맹, 범남본의장 이종린)이 있었음.

의문사 진상규명위 회의실에서 한상범 신임위원장의 취임식이 있었음. 리영희, 김승훈, 박형규, 오종렬, 박정기, 조찬배, 진관스님, 권오현의 사회단체대표들 함께.

기독교회관 2층 뷔페식당에서 1999년 평양축전에 다녀와 구속되었다가 이제는 모두 풀려난 라창순, 이성우, 박기수, 강형구, 서원철, 황혜로씨등 6명의 석방환영대회가 각계단체대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남본, 전국연합, 범청남본 공동주최로 열림.

여의도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철회를 촉구.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건립 예정지 앞에서 박정희기념관을 반대하는 '전국역사학자모임' 소속 교수들이 기념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종로구공평동 공평아트센터에서 한겨레문화재단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북한미술특별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고 발표.

19 수유리 4.19국립묘지에서 4월혁명회, 범남본,

전국연합, 민가협등 사회단체 합동으로 4.19혁명 42돌 기념식을 하고 영령들에 분향·헌화하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주최로 박정희기념관 기공식을 몰래 한 당국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음. 이어 참석자들은 대절 버스로 상암동현장으로 옮겨 기념관건립 규탄집회를 가짐.

용산 국방부앞에서 오늘 확정 발표한 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미제 F-15기를 선정한 조치에 반대하는 'F/X 외압의혹 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 주최로 규탄집회를 열음.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공공노련(PSI)과 공동으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및 공무원노조 간부구속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제소.

20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석방·정치수배해제·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토요캠페인' -탐골공원앞에서 벌임.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후원회, 양심수후원회 함께-곽인석, 이승미, 이동용, 노혁, 이창희, 이진, 고광희, 김호, 송창학, 김민정, 양계숙, 권오현 함께 함.

탐골공원앞에서 '테러방지법제정반대·F-15K 선정철회 반전평화대회'를 사회단체회원, 한총련학생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연세대학생회관 '고를샘'에서 '범청학련관련구속자 석방과 범청학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문화공연과 하루주점이 열렸음. 이정태, 송창학, 김호, 이승미, 이진, 노혁, 한수정, 이창희회원 함께하고 권오현 격려말하다. 그곳에서 시사모임도 함께 하였음.

여혜정·윤병로님의 귀여운 아드님 성원이의 돌잔치가 을지로6가 계림뷔페에서 있었습다. 너무도 귀엽고 뽀뽀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

을 독차지했습니다. 언제나 튼튼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움시롱 감시롱 회원과 후원회원 여러분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 21  양심수후원회 4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등 다른 행사가 많았지만 26명이 함께 하여 우이동 종점에서-고향산천길-소귀천계곡-소귀원 북능선-북한산성-동장대-대동문-진달래능선-4.19묘지까지 이르는 좀 긴 코스를 무사히 마치었습니다. 용암문 가까이에 있는 북능선 넓은 터에서 맛있는 도시락과 이동막걸리, 거기에 권주환 선생님이 갖고 오신 중국술로 흥취 마져 있는 가운데 식사를 마치고 소개시간, 이창회간사의 아리랑축제 설명도 있었습니다. 산성을 지나오면서 한상권 교수의 북한산성에 대한 역사강의도 들었고 진달래능선을 내려오는 길에故문한영선생님 6주기 추모시간을 갖고 시간이 늦어 4.19묘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4.19영령들에 마음속 참배를 하였고 한상권 교수의 인도와 비용까지 맡아하신 두부집에서 맛있고 맛있는 뒷풀이까지 마치었습니다. 고광희, 이정태, 이일규, 김창희, 김강선, 류종인, 유인호, 신현익, 김재선, 김순자, 이승미, 한상권, 조상희, 김민정, 권오현, 권영구, 유기진, 김교영, 안양희, 권주환, 김영식, 변숙현, 송세영, 안학섭, 박지윤, 이창희 함께 함.

- 22  고이즈미 일총리의 아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탑골공원앞에서 고이즈미 신사참배 규탄집회를 갖다.

- 23  14차 총회 - 회원들에 전화로 알림 - 감사패 받을 회원들께 알려드림

- 24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13차년도(2001.12 ~ 2002.3) 회계 및 사업내용 등 감

사받음(김규철, 노중선 감사님)

-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류춘도 선생님의 시집 '당신이 나 압니다'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잊히지 않는 사람들'에 이어 두 번째 시집에서도 조국전쟁에서의 해방전사들의 생사를 가르는 처참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사무국 간사들과 이득행 회원, 14차총회 보고서 편집하느라 종일 애쓰심. 특히 이득행회원님은 다음날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9기 1차년도 임시중앙위원회 및 창립 12주년 기념식이 단국대학교 학생극장에서 중앙위원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성대히 열림

- 25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시민법정추진위원회' 발족. '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기자회견을 열었음.

-  이문학회로 이구영선생님을 찾아 뵙고 퇴원된 선생님 건강을 살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원 후 오후마다 사무실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며 손님들을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민가협 424회 목요집회 - 여는 말:조순덕 상임의장, F15K 선정 철회관련 투쟁보고: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 양심수 하영옥님에 대한 대전교도소의 인권유린 상황 보고:권성희(하영옥님 어머니), 박정희기념관 물래착공, 고이즈미의 신사참배 규타 발언: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이관복 상임공동대표

-  이대부속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순애선생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하고 받침

대에 의지하여 실재를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전문 간병인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문병에는 변숙현, 김영식, 김수룡, 문재룡, 소기수 선생님이 함께 하였고 이창희, 고광희, 권오현이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간병비 일부를 드렸습니다.

☞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과 유가협 회원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진상규명 조사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상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이 함께 했고 계승연대에서는 오종렬, 조찬배, 홍근수, 권오현의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정일 재판관)는 조모씨등 재소자 30명이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국보법, 집시법 위반 재소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석방 심사규칙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매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안사범에게 이같은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아직도 냉전시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역행적 결정을 하였음

☞ 대전에 계시는 장광명 선생님을 찾아 뵙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하영옥님을 면회하였습니다. 이정태, 김소중, 최진미, 박인석 회원들 함께 함.

26 ☞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서울대총학생회와 김세진·이재호 열사 16주기 추모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반핵반전, 미국반대, 김세진·이재호 열사 16주기 추모제 '벗이여 해방이 온다' 행사를 거행 -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

과 사회단체 대표 함께 하다

☞ 명지대 교정에서 강경대 열사 11주기 추모제가 명지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되다

27 ☞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경선자가 종합득표 17,568표(72.2%)를 얻어 6767표(27.8%)를 얻은 정동영 경선자를 누르고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되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경선에서는 한화갑의원이 5961표(58%)를 얻어 대표 최고위원에 선출되다

☞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와 부산 동의대 항쟁과 관련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살았던 관련자 모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28 ☞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주관으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한상권 교수의 역사강좌 근·현대사 제5강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사" 강의가 있었음. 일요일 여러 행사가 있었음에도 24명이나 강좌에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고 화기애애하게 뒷풀이까지 모두 함께 하며 강의로 이어졌다.

☞ 천호동 신화웨딩월드(사파이어홀)에서 김동식·이낙호님의 둘째 딸 별아님이 안준걸님을 맞아 두 집 부모님과 축하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축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자주의 세기를 여는 당당한 발걸음 '반미여성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성대하게 열림. 회장에 이미혜, 집행위원장에 손미희, 조직위원장에 이정미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발전과 건투를 빕니다.

☞ 제4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남쪽에서 28일 설봉호로 속초항을 떠나 북녘 장전항에 입항, 5

시 금강산 여관에서 이루어졌다. 남측이산가족 99명은 북측가족 186명을 만나 헤어져 살던 아픔을 달랬다.

- 29 ✎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표시되는 '아리랑' 공연이 열렸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첫 공연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네팔, 미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호주, 예멘 등 20여개 나라에서 온 외국 손님과 해외동포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관찰했다고 한다. 4개의 장, 11개의 경, 서장과 종장으로 이루어진 이 공연은 100,000여명이 출연하고 배경대에만 1만 8000여명이 함께 하며 민족적 색채의 대예술적 화폭으로 펼쳐지는 조국통일염원과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의 지향을 형상하고 햇살춤, 부채춤, 상모춤, 장고춤으로 조화되는 황홀경을 연출했다고 통일뉴스가 보도. 매일 밤 8시에 시작, 1시간 20분간 공연되어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고 함



- ✎ 제4차 이산가족만남 이틀째인 29일 남과 북의 가족들은 금강산 여관에서 만난 것을 비롯, 구룡연까지의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오붓한 만남시간을 가졌다고 함
- ✎ 대전 양심수 후원회사무실에서 오후 1시에 양심수 후원회 전국회의를 가짐. 대전지역 양심수 후원회 임시간사 이주영과 대구지역 양심수

후원회 박은경 간사, 광주·전남지역 양심수 후원회 박상춘 사무국장 등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30 ✎ 2000년 9월 2일 북녘으로 가셨다가(송환) 세상을 떠나신 故이종환 선생님 1주기를 맞아 임시릉 감시릉에서 추도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리운 이종환선생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중국 베이징에서 29일-30일 사이 적십자회담을 열고 1)이북은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본에 통보해준다 2)일본은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결과를 이북에 통보해준다 3)이북거주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을 올 여롭게 실시한다 4)다음 적십자회담을 6월께에 연다 등 공동보도문 발표.
- ✎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973년 간첩혐의로 조사받다 숨진채 자살로 처리된 故최종길 前 서울대 교수의 사망경위를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고 발표.
- ✎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교수임용에서 탈락한 이선우(40. 신장장애 2급)씨가 국가인권위 중재로 인제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임용하기로 합의.
- ✎ 제4차 이산가족만남 3일째 마지막으로 금강산 여관에서 만난 남측가족들은 설봉호편으로 장전향을 떠나 속초항에 도착.
- ✎ 영치금을 양심수 78명에게 보냄.
- ✎ 말지 4권,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보냄.
- ✎ 출소장기수선생님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